

# 아동학대 의심 신고 광주·전남 하루 7.5건

지난해 각각 842건·1922건

발견율은 광주 낮고 전남 높아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 경찰과 지자체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가 27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7.5건 꼴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셈이다.

광주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피해 아동 발견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은 피해아동 발견율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지만, 신고건수로만 보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842건, 전남은 192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광주는 2021년 1038건에서 2022년 798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에서도 2021년 1905건에서 2022년 136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2022년 감소세는 코로나19로 집에 있던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광주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피해 아동 발견율(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 사례 발견 비율)이 2.13%(22만 954명 중 470명)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점이다.

반면 전남은 5.34%(23만 4998명 중 1254명)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피해아동 발견율을 기록했다.

피해 아동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아동학대 발생도 많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자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피해아동 발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적 아동학대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특히 담당 기관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견율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신고 담당기관은 2곳이며, 전남은 순천, 목포, 나주, 화순, 해남 등 5곳의 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신고의무자보다 비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사례가 더 많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행법 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이들은 아동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 지원센터 종사자나 교직원, 청소년시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응급구조사나 구급 대원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자치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에서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아동학대 의심 건수는 298건이었지만 비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사례는 544건에 달했다.

신고 의무자 중 초·중·고교 직원이 104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95건,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이 39건으로 나타났다. 비신고 의무자 중에는 부모가 237건, 아동 본인이 204건, 이웃이나 친구가 43건으로 가까운 사이에서 신고가 이뤄졌다.

특히 아동의 경우 본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 등 안전한 곳에서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신고 의무자 중 초·중·고교 직원이 206건,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이 116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36건이었고 비신고 의무자 중에는 부모(686건), 아동 본인(473건), 이웃·친구(135건) 순이었다.

광주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녹음 질어가는 여름 끝자락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완연한 2일 오전 광주시 남구 푸른길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 장흥 이·통장연합회 배포 배지 옥일기 모형 논란 일자 모두 수거

한마음 대회 앞두고 300개 제작

"오해 소지 있다" 일부 수령 거부

장흥 이·통장연합회측이 제작해 배포하려던 배지(사진)가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욱일기)'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모두 수거했다.

(사)전국 이·통장연합회 장흥군지회(이하 이·통장연합회)는 3일 장흥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전국 이통장 장흥군지회 가족 한마음 대회'를 앞두고 이장들의 결속을 다지고 단합된 모습을 보기 위해 옷에 착용할 배지를 300개를 제작했다.



하지만 이장 281명에게 배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장이 "배지가 옥일기와 비슷해 국민감정과 배치되고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령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통장연합회측이 업체에 주문 제작한 배지는 바다에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한 가운데 두

고 햇살이 퍼지는 모양으로 옥일기와 닮았다. 옥일기는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이 배지는 장흥군 지회의 요청에 따라 제작사가 (사)전국 이·통장연합회 로고에 기반을 두고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원 장흥군지회장은 "배지가 옥일기 모양과 유사하다는 점을 미처 몰랐다"라며 "논란이 일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장흥 10개 읍·면 이장단을 통해 배부 중단과 함께 배부된 배지는 모두 회수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충무취재본부장 kykim@

## 금호타이어 교섭 잠정 합의...기본급 3% 인상

성과급 500만원 지급...파업 유보

금호타이어 노조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사측과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사측과 16차 교섭 끝에 절충안을 마련해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임금 3% 인상(올해 4월 1일 소급 적용)과 성과급(격려금) 50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 지난 2018년 중국 더블스타 그룹이 인수했을 당시 중단된 명절과 근로자의날, 생일선물 등의 복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재개하고 경조금 상향(50만원), 다자녀 출산 경조금(둘째부터 100만원)을 신설하는 합의안도 도출했다.

노조는 5일과 6일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 찬반투

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앞서 15만 9800원의 기본급 7%인상과 지난해 성과급 배분, 고용안정 및 미래비전 제시, 신입조합원과 정규직 전환자 차별해소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임금 2% 인상과 성과급 400만원 지급을 고수했다.

이에 노조는 96.43%의 찬성률을 얻고 쟁의권을 얻어 지난달 28일 광주·곡성·평택 공장에서 결의 대회를 열고 이틀간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교섭에 나섰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잠정 합의안은 회사의 실적에 걸맞은 정당한 분배를 쟁취해 낸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사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영광군-한수원 한빛원전 임시저장시설 갈등

건식저장시설 부지 굴착 신고 지난달 1일 이어 22일 또 보완 요청

영광군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한빛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수원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굴착 신고를 냈지만, 사실상 영광군이 두차례에 걸쳐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영광군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영광군 건설교통과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굴착 신고(75mm이상 구멍, 9개)를 했다.

이번 굴착신고는 한수원이 한빛원전 사용후핵

폐기물 보관시설 포화시점인 2030년까지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목표로 2025년 시설 설계를 앞둔 기반조사를 위한 것이다.

당초 지난달 1일 한차례 신고를 했지만, 영광군이 30일 기한을 두고 보완 요청을 했다. 보완 요청 내용은 방사선 관리법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전반적인 세부계획, 안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방안, 원전소재 지자체 건의서와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 의견서에 담긴 해소계획 등이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달 22일 2차 신청을 하고 26일 추가 보완 답변을 해왔으나 영광군은 세부계획(용량, 운영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보고 또 다시 보완요청을 했다.

영광군은 건식저장시설이 임시 저장 시설이라고 하지만 좁은 면적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핵폐기물 영구설치에 찬성할 지자체는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결국 임시보관시설이 영구저장시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영광군은 한수원이 건식저장시설이 임시 저장시설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지질 조사를 마쳐야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입장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